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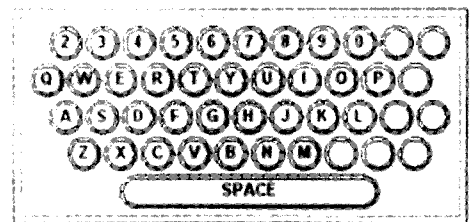
타 자 기  
발 명 한  
끈 기 의 남 자

# 크리스토퍼 솔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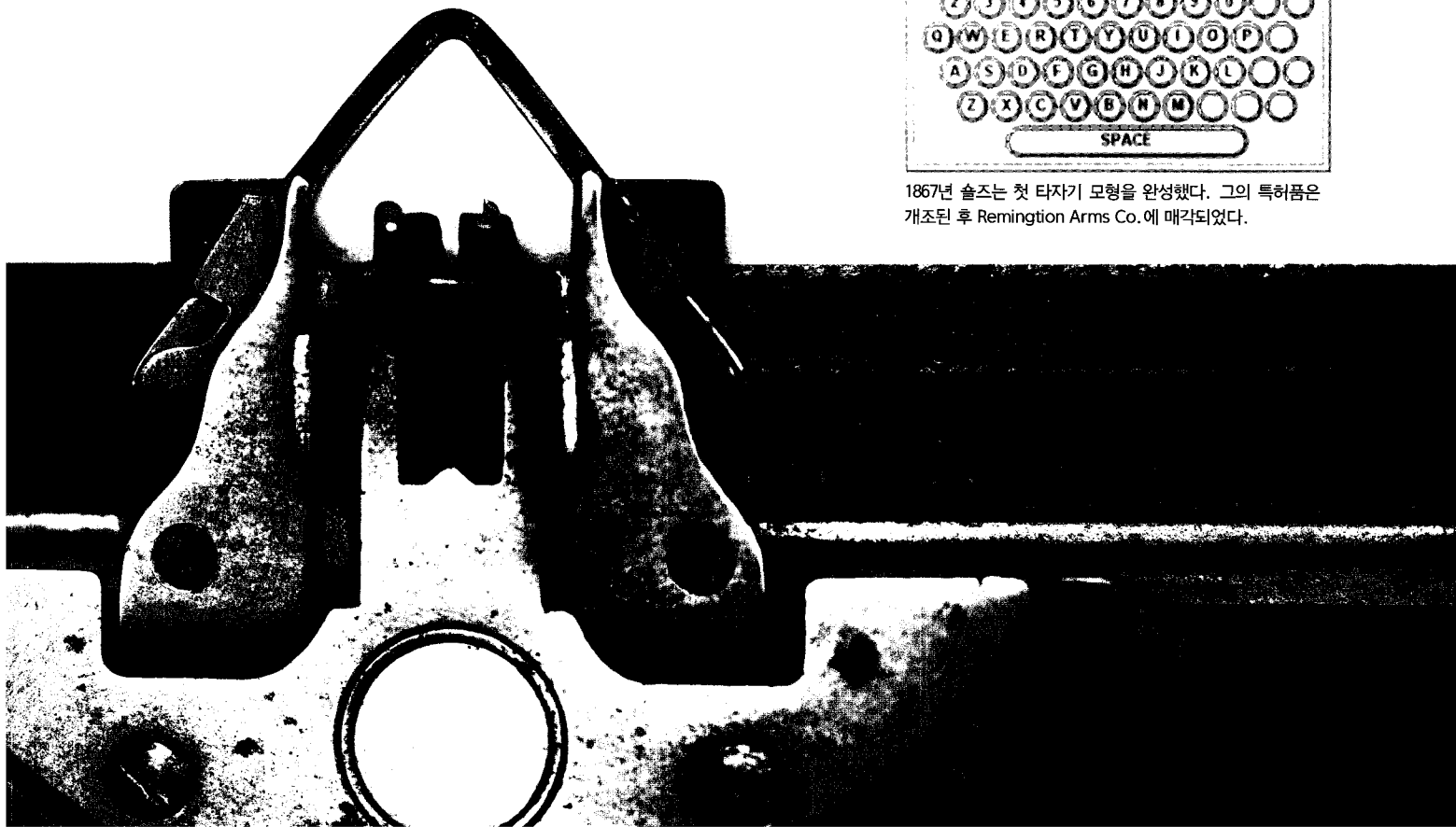


## Christopher Sholes

특허의 명칭 타자기의 개선  
특허등록일 1868년 6월 23일  
발명자 크리스토퍼 래섬 솔즈, 칼로스 글러든, 새뮤얼 소울,  
위스콘신 주 밀워키시



1867년 솔즈는 첫 타자기 모형을 완성했다. 그의 특허품은  
개조된 후 Remington Arms Co.에 매각되었다.



구텐베르크가 교체 가능한 금속활자로 구성된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 450여년이 지나서야 움직일 수 있는 활자의 원리를 이용한 일종의 개인인쇄기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타자기다.

1700년대 초부터 수백 년에 걸쳐 타자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었다. 수많은 오류를 거쳐 지금의 키보드 자판과 같은 배열의 타자기를 만든 사람은 인쇄인이었던 크리스토퍼 솔즈(1819~1890)다.

크리스토퍼 솔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자판기를 개발한 인물이지만, 그에 관한 자료는 많지가 않다. 다만 타자기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조금씩 언급될 뿐이어서 그의 출생 및 성장, 그리고 인쇄인이었던 그의 삶은 알수가 없다. 다만 그가 어떻게 타자기를 개발하게 되었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QWERTY(퀴티) 키보드 개발한 솔즈

솔즈는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인콰이어러, 밀워키 뉴스, 밀워키 센티넬 등과 같은 신문사의 편집인으로 일했다. 1864년 그는 자신의 친구인 새뮤얼 소울과 함께 페이지 번호 인쇄기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타자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글리든과 소울 그리고 솔즈는 1868년 6월 23일, 이전의 타자기를 개선시킨 제품으로 특허를 받았다. 이 제품은 잉크 리본을 이용한 타자기 특허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제품이었다. 자판을 피아노 건반처럼 검은색과 흰색, 2개의 열에 따라 배치했으나 'O'와 'I'를 놓을 자리가 없어 스펠링 'O'와 'I'로 대신했다.

1873년 솔즈는 고민 끝에 현재와 같은 왼쪽 상단에 'QWERTY'를 배열하고 4개 열의 자판을 배치하는 타자기로 개량했다. 구식 타자기의 기계적 특성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고 글쇠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자주 사용되는 글쇠를 멀리 배치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글자를 멀리 배열한 이유는 초창기 타자의 경우 배열이 너무 쉬워 타자수들이 너무 빨리 치는 바람에 타자기가 쉽게 고장나곤 했다. 그래서 타자수가 천천히 치도록 하기 위해 극도로 어려운 유형으로 글자판을 재배열한 것이다.

타자를 칠 때 왼손은 57퍼센트, 오른손은 43퍼센트를 사용한다. 가장 약하고 작은 3개의 손가락인 양 새끼손가락과 왼손 약자로 자판기 틈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며 가장 흔히 쓰이는 글자를 치도록 만들었다.

이 타자기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타자기로, 오늘날까지 표준디자인으로 남아있는 현대적인 'QWERTY(퀴티)' 키보드를 확립시켰다.



1874년 솔즈와 글리든이 만든 최초의 타자기

### 'QWERTY'(퀴티)' 키보드

'QWERTY'(퀴티)' 키보드는 위에서 두 번째줄 처음에 놓여있는 여섯 개의 문자를 따라 명명된 것이다. 이 디자인은 흔히 함께 사용되는 문자들을 서로 가까이 배치하면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할 때 엉킴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리한 통찰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솔즈의 자판 배열은 현대 키보드의 원형이 되었다. 솔즈는 1874년 자신의 특허권을 라이플총 제조회사인 레밍턴 앤선스사에 1만2천달러를 받고 팔았고 이 회사는 타자기를 제조해서 판매했다.

### 끈기의 솔즈, 끈기의 인쇄인

크리스토퍼 솔즈는 실용화된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타자기는 솔즈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타자기 관련 특허는 많았고, 솔즈는 52번째의 타자기 발명가일 뿐이다. 그런 솔즈가 실용화된 타자기의 발명가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때문이었다.

쉽게만 생각했던 타자기 연구에는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른 이들이 연구한 기간까지 합하면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기간은 힘겨운 투쟁이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타자기 상용화를 포기했지만, 솔즈는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존 발명품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론 기초 작업이 되어 있었지만 연구는 역시 어려웠다. 솔즈는 키보드와 타자된 글이 연결되는 부분의 디자인 설계에만 거의 6개월이 걸렸다. 그는 점점 수척해졌고 그의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연구를 그만둘 것을 권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꿈의 타자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는 성공의 밑바탕이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는 독한 끈기가 없었다면 그는 그 이전의 사람들처럼 타자기 발명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는 해내고 말았다.

큰 성공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운 고비들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우리 인쇄인들에게도 끈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 참고 문헌

- ◎ 상식속의 상식 노벨 에이 부리스 저 | 박명숙 역 | 장락
- ◎ 패턴초 (독창적인 발명품의 탄생 과정) 벤 아이켄슨 저 | 전광수 역 | 미래사
- ◎ 어쩌다 창업해 얼떨결에 부자된 사람들 이야기 마룬 저 | 더큰세상